

제주 가을관광 절정... 다시 긴장모드

개천절·한글날 황금연휴 호텔·팬션 등 예약률 급등
 인구 이동량 늘면서 코로나 추가 확산 우려도 커져
 관광업계, 거리두기 또 4단계 격상될까 '노심초사'

추석 연휴 이후에도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고 있어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후폭풍으로 전국적으로 1일 30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25만여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또 추석 연휴 이후에도 23일 3만7000여명, 24일 3만4000여명, 25일 3만2000여명 등 하루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14명, 24일 15명, 25일 7명 등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4-7일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주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달 초 개천절 연휴(2-4일)와 한글날 연휴(9-11일)가 이어지며 인구 이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에 확인 결과 도내 특급호텔과 고급팬션 등의 경우 개천절, 한글날 연휴 기간에는 객실 예약이 90% 이상 차있는 상황이며, 최근 60-70%대를 보이고 있는 렌터카 예약률은 연휴기간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맞물려 도내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관광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또다시 4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도내 숙박시설은 객실 2/3를 운영할 수 있는데, 4단계로 격상될 경우 객실 2/3만 운영이 가능해져

숙박시설에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에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하는 등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를 최근 문을 연 도내 유흥시



파란 바다를 가르며... 청명한 가을날씨가 이어진 26일 수많은 서퍼들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가에서 카이트서핑을 즐기고 있다. 카이트서핑은 파도가 없어도 바람만 불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스포츠이다. 이상국기자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기간 연장되나 도, 올해 말 종료 대비 임시 허가 전환 추진

제주에서 실증(사업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 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9년 12월 전기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

설은 영업개시 열을 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4단계로 격상될 경우 관광업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한 달 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또 다시 문을 닫게 되면 임대료 등 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해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월부터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로서 거리두기 완화와 격상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주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ty9456@ihalla.com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형 경제기본권 보장 방안 모색"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제2공항 해법 모색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제주도민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주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지사는 "제주는 외지인들과 공공기관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없다"며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4·3과 같은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들은 잔인했던 역사의 사실이 확

인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나 다를 없다"며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꺾고자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 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광역시채널센터 × 한라일보
 치매예방학습지 **뇌똑똑**
200회차 기념 이벤트
 (2017. 09. 20. - 현재까지)

기간: 2021. 9. 29.(수) - 2021. 10. 1.(금)
 대상: 한라일보 구독자 (제주도민에 한함)
 당첨: 정답자 중 선착순 100명 (농협상품권 1만원권)
 발표: 2021. 10. 5.(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2021. 10. 4.(월)이 대체공휴일인 관계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1. 한라일보에 게재된 '뇌똑똑 200회차' 문제를 푼다.
2. 경품수령을 위해 문제 아래 제시된 <개인정보보안>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다.
3. '뇌똑똑' 정답과 <개인정보보안>이 보이도록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다. (JPG 등 사진파일용 이용해 문제풀이를 했을 경우 문제, 정답, 개인정보보안이 보이게 캡처해주세요)
4. 촬영한 사진을 jeju@nid.or.kr로 문자 전송한다. (문자 전화번호변환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룸갤러리 **최예태 화백 특별 초대전**
 최예태의 회화 세계

하롱베이 2019 면과 색 그리고 리듬 2020 일출A 2020 아무르B 2020

기간. 2021. 09. 16(목) ~ 09. 30(목) 장소. 이룸갤러리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u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최예태 (崔禮泰) 호: 울림 (蔚林)
 대한민국 미술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지정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한국예술상 수상
 대한민국 미술인 특별상(장리석상)
 2015. 성신여자대학교 최예태 미술관 설립
 2016.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수상
 2017. 안대평당전 심사위원장
 2019. 프랑스 마니에 국제 아트페어 심사위원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위원장
 KAMA한국 현대미술가협회고문

많은 영혼의 울림 최예태 예술론 |
 서승석 (불문학박사 · 미술평론가)
 많은 영혼의 울림 같은 최예태의 그림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과 색으로 구성된 교향곡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찾아오시는 길 |
 오일장 교차로 제주서중 이룸갤러리 순복음교회 신광사거리
 마트로마트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